

“지역문화 진흥 도모 · 경쟁력 높일 것”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제7대 회장 백옥선 대표 선임… 수도권 밖에서 선임된 첫 여성 회장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이하 전지연)는 제7대 후반기 회장으로 전주 문화재단 백옥선 대표를 선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개최된 2023년도 정기총회에서 백옥선 대표를 만장일치로 추대, 차기 회장으로 선임했다. 임기는 2024년 4월 16일까지다.

백옥선 신임회장은 현재 전주문화재단 대표와 전지연의 부회장을 맡아 활발히 활동한 인물로서, 중앙대학교 예술경영학 석사와 전북대학교 문화인류학 박사를 취득했다.

예원예술대학교 객원교수, 전북대학교, 백제예술대학, 전주대학교 등에서 외래강사를 역임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전북도청 문화정책과 전문직 사무관과 전주시 공예품전시관 초대관장, 전주한지축제의 익산 서동축제 예술감독 등 문화행정과 예술경영 현장을 두루 거쳤다.

2012년 출범한 전지연의 역대 회장(7명)은 대부분 수도권(서울경기지역)의 문화재단 대표가 맡았으나, 신임회장이 된 백옥선 대표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당선된 최초의 여성 수장으로서 기록을 갖게 됐다.

신임 백옥선 회장은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라는 연대의 힘으로 지역문화의 경쟁력을



백옥선 신임회장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는 22일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개최된 2023년도 정기총회에서 백옥선 대표를 만장일치로 추대, 차기 회장으로 선임했다.

높이고, 문화의 가치확산과 사회혁신의 중요한 자원으로서의 지역문화 진흥을 도모하겠다”며 “지역문화가 지역민들의 보편적 삶의 양식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와 함께 7가지 공약도 제시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전지연의 법제화 추진과 오는 7월초 개최되는 제2회 대한민국 문화재단 박람회 성공개최, 전지연의 중장기 새로운 비전과 전략과제 제시, 전국지역문화재단 종사자

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직무별·직위별 교육 확대, 해외 견학과 연구·연수 강화 등이 다.

한편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는 115개의 기초 자치단체 산하의 지역문화재단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7700여 명의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현재 전국 226개 시·군·구 자치단체 중 50.9%의 지자체가 문화재단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모두의 문화, 모두의 무주’ 추진 탄력

무주 한국역사교육문화연구소, 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공모 선정

무주군 지역 내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과 향유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역사교육문화연구소가 (재)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공모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무주군에 따르면 2023 기초단위 생활문화 확산 지원 분야인 ‘모두의 문화, 모두의 무주’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면서 사업비 1억6천만 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무주군에 동지를 둔 한국역사교육문화연구소(대표 박용수)는 협력단체와 동호회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군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올해 추진될 ‘모두의 문화, 모두의 무주’ 프로그램은 지역내 청소년은 물론 남녀노소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창출자이자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

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고 있다.

이에 한국역사교육문화연구소는 생활문화 확산사업을 비롯해 생활문화 공동체 동호회 활성화 사업, 생활문화 시설 활성화 사업, 생활문화 특성화 사업 등 13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역사교육문화연구소 박용수 대표는 “이 사업을 통해 무주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무주지역민의 생활문화를 만들어가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문화는 공평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것이 문화라고 생각한다”면서 “지역주민들이 일상에서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해 지역의 상황과 지역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생활문화에 초점을 맞춰 프로그램을 진행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천년한지관, 전통한지 제조교육 진행

전주천년한지관은 전통한지 제조교육 ‘한지·상상·짓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전통한지 계승을 위한 국내 유일의 전통방식 한지제조 교육으로, 한지 관련, 연구 전문가와 예술인은 물론 일반인까지 폭넓은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날 한지관에 따르면 전통한지 제조 과정은 물론 한지를 직접 제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통한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통한지 제조교육은 전통한지제조 이론교육과 전통한지 제조 실습교육 등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 오는 24일부터 2주간 금요일과 토요일 총 4회에 걸쳐 이뤄진다.

특히 전통한지 제조 이론교육은 전문강사를 초빙해 깊이 있고 올바른 지식을 전달, 한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와 함께 우리의 고유 한지뜨기 방식인 외발(홀림)뜨기를 접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접 만든 한지를 가져갈 수 있다.

/장은성 기자

‘몽연-서동의 꽃’ 공식 포스터 공개

전북문화관광재단, 동서화합 메시지 · 서동요 풍경 그려내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22일 ‘몽연-서동의 꽃’ 공식 포스터를 공개했다.

이날 재단에 따르면 올해 공식 포스터는 서동과 선화의 애뜻하고 서정적인 사랑 이야기를 바탕으로 ‘동서화합(harmony)’의 메시지를 담아 노랑과 검정, 투박함과 정교함의 드로잉, 남과 여 등 상반된 느낌을 조화롭게 표현했다.

메인 색상은 백제 금동대향로와 백제·신라의 ‘금관’에서 볼 수 있는 ‘금색’을 사용해 단조롭지만, 기품 있는 당시의 위상을 나타냈다.

포스터 위쪽은 금동대향로를 모티브로 반달 산수 문정의 문양이 얹어진 무릉도원 세계 안에서 백제 무왕이 꿈꿨던 평화를 투박하게 표현했고, 아래쪽에는 서동(무왕)과 선화의 애뜻한 사랑과 서동요의 풍경을 정교하게 그려냈다.

여기에 원을 중심으로 화합과 융합의 메시지를 관람객의 상상력으로 이끌어내고자 했다.

특히 이번 포스터는 전북 청년예술인 ‘최하영 작가’의 아트웍으로 제작해 11년째 진행하고 있는 전북관광브랜드 상설공원의 의미를 한층 더했다.

최하영 작가는 이번 작업에서 “회화적 느낌을 필두로 거칠고 투박한 그림과 정교하고 반들반들하게 그린 두 가지 느낌을 나타내 무왕의 현실세계와 이상세계의 조화를 표현했다”며, “검은 바탕에 셋노랑 색을 입힌 후 그 안에 녹색 계열의 색을 부분마다 포인트로 넣어줌으로써 생동감 있는 표



현과 두 사람의 애뜻한 사랑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최 작가는 전주에서 태어나, 전북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했다. 2015년 제24회 신예작가초대전에 참여해 두각을 나타냈으며, 손 그림을 그린 후 포토샵으로 채색하는 작업 위주의 일러스트를 비롯한 다양한 대중 예술을 통해 지역을 알리고 있다.

한편 ‘몽연-서동의 꽃’은 서동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판소리댄스컬로, 6월 2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전북예술회관 공연장에서 매주 4회 공연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jct.or.kr)나 예술회관운영팀(063-230-7490, 7495)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김제 금구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선정

김제시 금구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도서관협회 주관하는 2023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선정됐다.

길 위의 인문학은 지역주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인문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역 도서관을 거점으로 강연 및 독서 토론과 연계하여 인문학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선정에 따라 금구도서관은 7~8월중 수강신청을 받아 ‘호남평야의 중심-김제에서 동학농민혁명의 뿌리를 찾다’를 주제로 8월 24일부터 11월 16일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은 최고인(원평집강소)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상임이사 등 동학농민혁명 관련 저자의 강연과 윤현주(인문고전연구소) 대표의 토론활동, 프로그램 관련 후속모임 등을 10회 진행한다. 또, 동학농민혁명의 배경이 되는 원평집강소, 구미란전적지 등과 정읍만석보, 피항정, 무성서원, 김개남활동지 등을 2회

현장탐방하여 그 시대의 역사를 바로 알고 인문학적 소양을 쌓을 예정이다.

현장 탐방하게 될 김제 원평집강소는 1882년에 4칸의 초가로 지어졌으며, 동학농민혁명 시기에 백정 출신 동록개가 원평대접주 김덕명 장군에게 “신분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며 헌납했으며 현재 유일하게 남아 있는 집강소 건물로 동학농민혁명사에 있어 매우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연숙 시립도서관장은 “길 위의 인문학을 통해 동학농민혁명의 강과 빛 책을 읽고 130년 전 원평에서 일어난 동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시민의 인문정신문화 가치와 민족적 긍지를 높이고자한다”고 밝혔다.

참여 신청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금구도서관(540-4163)로 문의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